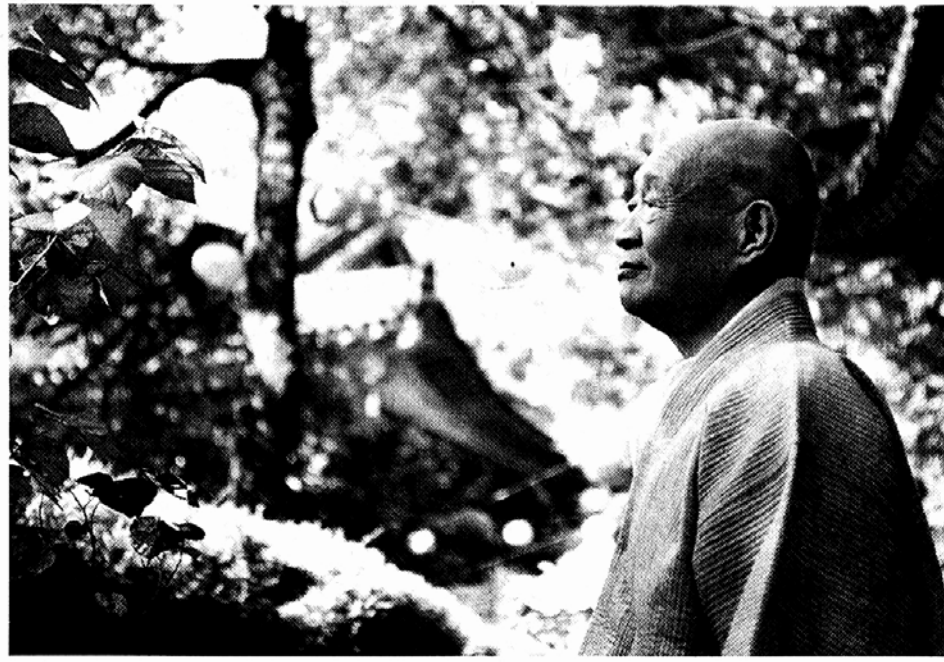


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몇 세를 거쳐 공덕을 쌓으면 차츰 그 업보가 얽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게 한 작은 과실도 업이 되어 우주간에 떠돌면서 사람의 여러 생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업이 쉬지않고 계속 되는 것을 업업상인(業業相引)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행동이 다른 행동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자업자득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까닭은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피서 진실한 언행, 선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전체적으로 보아 이제 우리 국민의 지식수준과 사는 수준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높아졌고 모든 것을 보는 시각도 향상되었지만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성은 품성으로 사람들 사이의 틈을 메꾸어주는 덕(德)은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식은 국민 모두가 갖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요. 또 남을 용서하는데도 더 인색해졌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과 지식수준은 정말 놀랄만치 높아졌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가 정연하고 비판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은 이들이 남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있어요. 실사 안다 해도 대부분 남의 탓으로 돌리지요. 실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남앞에서 시인할 수 있고 또 남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고 또 남의 잘못은 용서해주는 심덕(心德)이 각자에게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으로 봐야 할 정도로 갈등과 이기심, 불화가 많은데 이 또한 자기 잘못은 접어두고 남의 잘못만을 규탄하면서



는 듯 해요.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으레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보살이란 호칭은 그 본뜻과는 달리 어느덧 불교의 여성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보살은 스스로의 진리체득을 위한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타인을 위해 자기 헌신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남의 구분이 아니라 생활의 가치에 구분을 둔 용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각유정(覺有情)이며, 대심중생(大心衆生)이라 하시며 불도에는 대심중생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보살행의 원만성취 없이는 성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삶에 대한 반성없이 삼독심은

또한 부지런히 하는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로 보살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은 불교적 인간의 행위요, 불교적 인간이 보살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형성의 종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자기에게 집착된 미망을 벗어나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열반이라는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불가피한 성불의 과정입니다. 성실한 보살의 생활이 성불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끝없는 노력으로써 인간의 생활에 진선미를 다하며 인간을 창조하려는 길이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과제이며 지향목표라 생각하세요. 자비의 바탕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중생이 관념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는 없어요. 자비는 우리의 망상과 번뇌, 잡념이 마음에서 사라진 경지에 이른 사람이 생명의 넘치는 흥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자비를 베풀수 있으니 교만하거나 이기심에서 자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성불을 하자면 보살도의 수행이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보살도 없는 성불은 원인 없는 결과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굴리고 끊임없는 상념을 좇아 살아가기 바쁘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생각이 흘러 감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할나 할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지요. 정처없이 흘러가는 그 마음이 모든 희로애락 고통 회복을 낳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모두 집착과 망상에서 나온 병입니다. 그러니

“ 자기 잘못은 용서 남의 허물은 규탄 결국 갈등과 불화 ”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걱정할 일도, 미워할 일도, 싸울 일도 없어져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쉬어버리면 그 자리에 공공적하고 불성불멸한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납니다.

한 겨울이면 얼음이 공공입니다. 그 얼음을 사람에게 집어던질 경우 사람이 다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얼음이,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을 잃은 것은 아니지요. 봄이 와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얼음은 어김없이 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나 망상도 불심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모아 정진하여 번뇌업장을 해소하면 일체의 마음은 다시 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게 쓰세요. 달마대사의 말에 “마음 마음이며, 너그러웁게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끝도 용납않네”라고 했습니다. 불자들의 수행생활이란 무한토록 마음을 잘 쓰는 용심(用心)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것이나 중생이나 마귀가 되는 것은 다 마음 씀에 달려있는 것이니 마음을 잘 쓰는 지혜를 배워 실천에 옮기고 정진 또 정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opia.com) 사인=고영배 기자 (ybgo@buddho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산스님

산에 올라 보면 산내음이 있다. 풀향기 같지만 풀향기도 아니고, 솔향기 같지만 솔향기도 아닌 독특한 내음이다. 산내음은 어느 하나의 냄새가 아니다. 풀과 나무, 바람과 구름의 냄새다. 이 모두가 대자연의 품속에서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산내음이 된다. 사람에게도 내음이 있다면 어떨까. 가을산 깊어가는 계절속에서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단풍이 아름답다. 붉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푸르고 누렇고 주홍색을 품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 우리들 마음에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까. 늘푸른 산내음과 붉은 단풍 색깔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지닌 스님이 있다. 어느 봄날, 흥류동 계곡 벚꽃이 유난히 흐드러지게 피어 눈꽃이 휘날리던 날 밤에 평소 가까운 스님 몇몇이 흥류동 계곡 고운 최치원 선생이 노닐었다는 정자에 모였다. 달빛조차 고요한 밤, 주체할 수 없는 흥에 겨워 몇 잔의 곡차를 주고받았을 때 금사음을 추며 유난히 좋았던 스님이 있었다. 지산 스님이다.

흥류 좋아하고 재주 많은 스님이었다. 무엇보다도 일복 많아 괴로운 스님, 그러나 자신의 수행길에서 한치의 방일도 허용치 않는 굳은 심지를 지닌 스님이었다. 흥류동 계곡에서

방일 허용않는 굳은심지 불의보면 동분서주 대책

의 밤 벚꽃놀이를 즐긴 며칠 후 지산 스님은 물어보라며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왔었다. 밑줄까지 그어놓은 책의 제목 또한 재미있다.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주걱은 술과 싸우지 않는다” 아마도 그 날 많이 취해 버린 나에게 주는 무언의 경책이었으리라. 체구는 작아도 능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배포와 능력을 지니고 오늘도 지리산 실상사에서 천일기도와 함께 원수소임을 살고 있을 스님. 오늘처럼 가을햇살 따가운 날 불현듯 그 스님의 차 한잔이 그림고 그의 산내음이 맑고싶고 그의 가슴속에서 붉게 물들어 갈 “중물”의 색깔이 보고 싶어지는건 왜 그럴까? 지난 94년 조계종단이 삼선개헌 등으로 매우 시끄러울 때 산중의 학인들은 작금의 종단 사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 그냥 학업에만 전념하고 외면할 것인가, 적극 동참하여 개혁의 임무를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때 홀연히 일어나 “지금 종단 개혁의 물고기를 물지 못한다면 차후 종단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대중을 이끌었다. 이수리장의 총무에서 건물앞에서 핸드마이크를 손에 쥐고 사자후를 토하며 학인들을 지휘 독려하던 모습에 평소 말이 없고 책만 보는 스님인줄 알았던 나는 저적이 당황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스님, 지산스님은 그런 스님이었다. 어느 조직체는 유독 일거리가 많은 스님이 있다. 지산스님이 그랬다. 종단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야산 골프장 건설 때문에 또 한번의 흥역을 치러야 했다. 스님은 그때까지 활동하던 전승준 소임을 그

만두고 가야산 골프장건설 반대 대책위를 맡아 불철주야 동분서주했다. 고생이란 고생은 아마도 그때 한꺼번에 했을 것이다. 무려 한 달 보름여만에 골프장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끌어 냈으며 몇 년을 끈 송사 끝에 결국에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그때 지산스님의 노고 없었으면 골프장건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지산스님은 강원생활 내내 일에 쫓겨 다녔지만 짬을 내어 마을의 꼬마들을 무척이나 챙겼다. 해인사 신부락의 꼬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 ‘지산스님’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꼬마들과 어울려 산중암자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진불을 닮았다. 바쁜 강원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수행을 방일하지 않았던 스님, 강원 교제인 수다라며 다보경권, 신행지 등의 편집일을 도와 대중스님들을 편안케 하였던 스님. 왜 그 스님에게만 유독 산내



음이 나는 걸까? 왜 그 스님에게는 단풍보다 더 고운 붉은색의 가슴이 연상되어지는 걸까? 지금 지리산에는 지리산법 건설반대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려니와 스님의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워낙 심지 굵은 스님이라 별 걱정은 없다. 몇달전 실상사에 들려 차한잔 마시고 돌아서는 내게 기도기간중 산문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여까지 밖에 배움을 못해 미안하다며, 곱게 접은 인사꽃자 한봉지를 선물로 주던 그를 남기고 돌아서던 길에 그가 강원시절에 지었던 시 한수가 생각났다. 장경각 법당/법보전은/10여명이 들어서면/배곡하게 가득찬다/조그마한 까닭에/관객들의 소음이/여간 뒷통수를 때리는게 아니다./소음?/엄마, 저기 앉은/부처님은은 좋고 있어/“이녀석, 스님들 기도하는데/그런 말 하면 뭘?”/“이이~, 줄고 있는데...” 지산 스님의 산내음을 말할 수 있을것 같은 시기에 지금도 소중히 지니고 다니다. 그러다 보면 행여 나에게도 산법새가 배지 않으려나...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더불어 사는 첩경은 자비로움 불교는 가장 과학-합리적 종교

자신의 목적과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 사회가 이렇게 혼탁스럽기에 이러한 사회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만큼 좋은 덕목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란 사회속에서 남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지 않고서는 존재의의가 없지요.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함과 부드러운 자비심 등이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한다는 전방이지요. 불교에서는 동성 여성불자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의미가 각별한 칭호입니다. ▲ 여성불자들을 통칭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나 대부분 보살의 위상과 실체를 잘 모르고 있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보살이라 불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살님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돌아보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보살님들만 제 위치에서 ‘보살’의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고자 노력해도 우리나라는 대변에 달리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보살은 불교를 이끌고 나가며 부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공덕을 중생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보살적 인격이 많았던 시대에는 불교가 중흥했고 이념적으로 그 시대를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 불교의 도덕적 가치를 절감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살없는 적막한 시대에는 불교내에서도 시비와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민중들은 불교에 실망하고 식상하여 등을 돌렸었습니다. 불교의 진리 즉 도를 깨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는 노력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원년세대의 용의 꿈을 꾸세요~”

수공 소정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영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용자 달마(달마대사)그림, 능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세에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준 100% 효과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회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korea art gallery) http://www.cmhouse.net

사립설계,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 전 함

도 난 방 지 장 지 ◆ 특히 2000-001 1559 ◆

철골고 3.5m 목재 짜 맞출

복전함 내부

충격상태

수신기(동무소 등 원하는 타점소에서 수신기 작동)

강제개폐

이동상태

- 점검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적응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능
- 해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 함의 충격, 여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 및 원하는 타 점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 본 함의 전용플리퍼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한 사이언스를 연결 중요시 실용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천상천하유아독존

(부부 속 전제, 구함 속 흥분) (나그것 → 나너 → 나나)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사람)

참나 꽃 피우는 방편 꽃 우담바라 (하나님)

안은 열어나자 맘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견뎌지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람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뻐보 넘고 얼굴 모두 아닌 숨골 국한하는 호흡 넘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각 중시하는 기공 넘고 열의 밤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넘고 근원합일 제의 인과처방 자족하는 심리치요 넘고 모든 인간 여의주 부유 간과하는 의식개발 넘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일 수 밖에 없는 체널링 넘어 풍요중보다 문제인 마음의의식 혼동하는 일체유심조 관동

【과 정】

- 목덜미 여의주 꺼내 손질
- 생각고치 안밖 자유 완래
- 지푸라기 속 무한성 확보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 형성 가득 마음 마음대로

【특 징】

- 애고 비움 죽임 아닌 확장
- 기존 핵심 용어 자원 혁신
- 승골 포함 얼굴 모두 진행
- 심각 아닌 진전 높이 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제 명 소 감】

* 식가의 불의 예수의 有 중생 교연 세원년 비전* 박성인(공무원) '食一頓和, 息一息, 見一觀 심을 흐른 노지 소원 성취 경명철(교수) '이름은 곧 힘, 침니로의 근원적 해방 지류 경-이정숙(의사) '원원 아닌 배반적심 짓고 자유 미소 아닌 미소-김진숙(정시원) '죽어있는 것 흐르게 살아있는 것 팔찌에 개 연이도 단-박진익(주부) '이로서 최대 가치 - 나는 당신을 사랑 - 이 정말 되었나-김대성(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 15:00 ~ 토 15:00(참가비:55만원) 농협 111-12-336000 윤석배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제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공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나, 매주10가마나,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 가능)

금 용 시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신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